

바위 위 황혼 인생

박복수



많은 열매로 남을 기쁘게 해주고 싶던 마음
겁 없이 달리던 꿈, 시인의 길
이제는 황혼에 맞은 그루터기
허나 한 점 후회없는 지난 봄날들
오직 감사로 가득 찬 덩으로 주신 오늘